



CONTENTS

만드는 사람들

편집인·주관 박현철

취재기자 박은수

사진기자 이철수 윤영 한인숙

디자이너 성은경, 광기윤

발행 환경운동연합

자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길
함께사는길

2023
NO.357
3

- 02 쓰레기로 뒤덮인 발칸반도의 강 · 박현철
- 14 이야기 그림 86 교복과 엽서 · 고정순
- 16 온새미로 192 건너다 · 박현철 · 이성수
- 17 살대를 위하여 198 위험 평가보다 제거 위해 나서라 · 박현철
- 18 봄비를 기다리며 · 함께사는길
- 20 문창식 전 공동의장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한
환경운동 30년 · 이철재
- 24 줄리안 쿤타르트의 지구를 위해 함께 쌓는 작은 보람 · 장지은
- 28 백지화된 설악산 케이블카 되살릴 음모를 막아라 · 김종원
- 32 법이 고래를 지키게 하라 · 김술
- 36 바다생태계와 해상풍력의 공존은 어떻게 가능할까 · 류종성
- 40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쟁점과 이슈 · 김재병

특집 화석연료가 보낸 경고장

- 46 난방비 폭탄? 화석연료의 진짜 가격을 묻는다 · 권우현
- 50 핵발전 전기는 요금과 기후 둘 다 잡을까? · 김현우
- 54 재생에너지 확대 늦출 시간이 없다 · 안재훈
- 58 시행 1년 중대재해법 더 강화할 때 · 강홍구
- 61 강으로 간 골프장, 파크골프장 · 박은수
- 64 홍준표 도지사님, 금호강에 더 이상의
파크골프장은 안됩니다 · 정수근
- 67 고양이와 새 그리고 도시 생명들에게 · 박은수
- 70 힘내라 저자도, 흘러라 한강 · 김통연
- 76 에코텍스트 193 자기파괴의 시스템과 생존 철학 · 조은영
- 78 별누워기 194 이정록의 시 「소동 이야기」 · 이경호
- 80 숫자로 보는 환경이슈 105
그린벨트 3.78% 시대, 도시환경은 뭘로 지키나 · 함께사는길

정기구독 · 1년 72,000원

03044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7-2 4층 월간 『함께사는길』

(전화) 02)730-1326 (팩스) 0504-981-7017

(이메일) hamgil@kfem.or.kr


■ 월간 『함께사는길』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께사는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ecoview.or.kr>

『함께사는길』의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 남서부 도시 프리보이 인근 램 강의
포드페코 호수(수력발전 저류지)에 모인 부유
쓰레기 AP Photo/Darko Vojnovic



쓰레기로 뒤덮인 발칸반도의 강

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

유럽대륙 동남부 발칸반도의 연안바다는 몇몇 지역명으로 불린다. 마주 보는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반도를 가르는 바다는 아드리아 해다. 아드리아 해는 반도 남단 그리스를 기점으로 서쪽 이오니아 해와 동쪽 에게 해로 나뉘고 에게 해는 마르마라 해로 이어지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을 경계로 흑해와 나뉜다. 발칸반도에 속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등은 과거 유고슬로비아연방(이하 연방)의 일원이었거나 연방의 영향 아래 있었던 나라들이다.

연방 건국의 주역이었던 요시프 브로즈 티토 대통령은 연방의 처음과 끝을 철권으로 통치했던 인물로 1980년 그가 사망한 뒤 연방은 10여 년의 혹독한 분열기를 보냈다. 분열은 1990년대 들어 이슬람과 동방정교, 가톨릭, 유대교 등 종교분쟁과 민족주의의 충돌로 적대적 대화살이 동반된 내전으로 이어졌다. 연방은 6개 나라도 쪼개졌고 발칸반도라는 하나의 지역생태계에 그어진 복잡한 국경선 안에 갇혀 각국은 자국 안에만 행정력을 투사했을 뿐 국경을 넘나들며 사행하는 국제하천이자 국경과도 겹치는 강들을 지킬 정책과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발칸반도는 많은 지류를 거느린 강들이 산악과 협곡 사이를 국경을 넘어 흐르는 땅이다. 석회암이 기반암인 지대여서 석회암을 녹





2015년 8월 29일 촬영한 드리나 강 협곡지대.
석회암이 녹아 초록빛을 띠는 발칸반도 강들의
전형적인 물빛을 보여준다 출처 위키트리

세르비아 프리보이 근처 림 강에 떠다니는 폐기물을 방지망으로 모아두었다. 플라스틱 병, 나무판자, 녹슨 통, 전자제품 폐기물 등이 규제 없이 강변 매립지에 버려지고 우기에 빗물에 쓸려 강에 들어간다. 우기를 틈타 강에 쓰레기를 직접 투기하는 경우도 잦다 ©AP Photo/Armin Durgul



이며 흐르는 발칸의 강들은 햇살 아래에서 밝은 초록이나 짙은 청색의 보석빛으로 반짝인다. 림 강은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를 건너 흐르는 강으로 드리나 강의 가장 큰 지류다. 드리나 강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세르비아를 거쳐 흐르다가 사바 강에 합류한다. 사바 강은 다시 유럽 최대 강인 도나우 강에 합쳐져 흐르다 흑해로 들어간다. 발칸반도의 우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시기다. 여러 곳에서 국경선이기도 한 림 강과 드리나 강, 사바 강으로 빗물이 온갖 쓰레기를 끌어안고 유입된다. 전쟁 이후 계속돼 온 일이다.

강에서 우기마다 벌어지는 쓰레기 범람 사태는, 티토가 1960년대부터 강 곳곳에 건설한 수

력발전소 발전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림 강이 드리나 강과 만나는 부근의 세르비아 남서부 강변 도시 프리보이 인근에 드린스콜림스크 수력발전댐이 있다. 수력발전소를 가동시키기 위해 매년 우기에 강에 밀려드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들을 걷어내 태우거나 강변에 적치 수준의 재매립을 하고 있다. 거의 반년씩 걸리는 그 작업이 대략 마무리되고 수개월 지나면 여전히 부유물이 곳곳에 남아 있는 강에 다시 겨울비가 쏟아진다. 그리고 또다시 쓰레기들이 강으로 밀려들어온다. 림 강이 드리나 강에 합류한 뒤 사행하던 드리나 강은 보스니아 서부의 중심도시 비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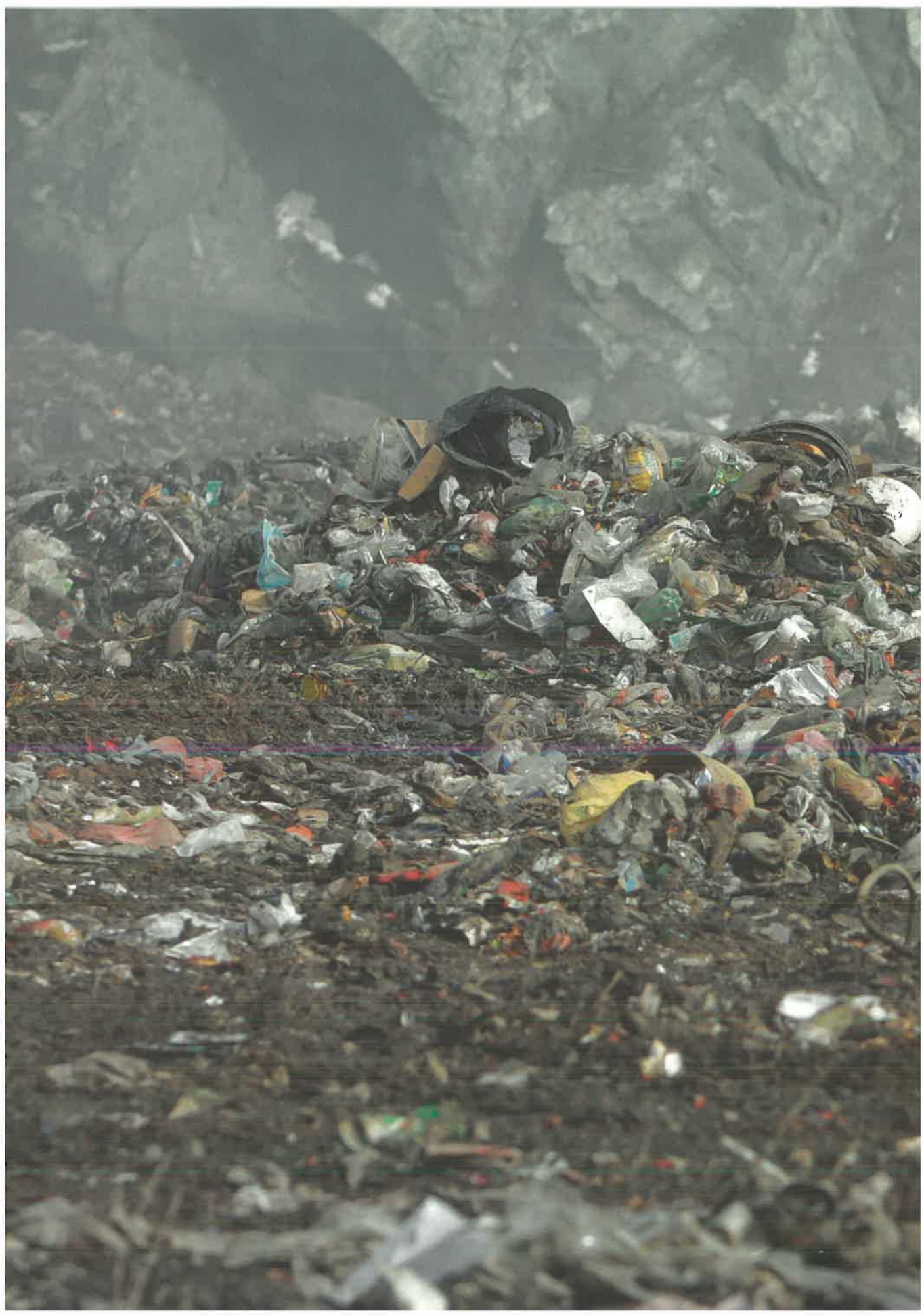
그라드 인근에서 비셰그라드 수력발전댐과 만난다. 이 댐 저류소에서조차 역시나 매년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다. 한편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에 걸쳐 자리한 스프스카공화국(세르비아계)은 세르비아의 재정기술지원을 받아 '부크 비엘라 수력발전소'를 비롯한 3개 대형댐 건설을 드리나 강줄기에 추진하고 있다. 몬테네그로와 보스니아 정부, 그리고 이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대는 무시되고 있다. 이 댐들은 공사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을 부를 것이 명백하고 또한 완공된다 해도 쓰레기 유입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악순환을 끊자면 림 강과 드리나 강을 공유하고 있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세르비아, 몬테

네그로 발칸 3국의 통합적 환경행정 협력체제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협력하자는 말뿐인 약속만 있지 실제 협력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 시도는 더디고 공동 자원 마련은 여전히 먼 길이다. 갖가지 오염물질을 끌어안은 플라스틱 폐기물, 전자제품 폐기물, 목재 쓰레기 등 부력이 있는 모든 쓰레기가 강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뒤틀린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대립, 경제개발에만 몰두하는 국가이기주의가 하나의 자연생태계인 발칸반도의 강산을 오염시키고 있다. 수력발전을 위한 불완전한 부유 쓰레기 수거만으로 매년 심화되는 강의 오염까지 막을 수 있을까. 46



세르비아 림 강 드림스콜림스크 수력발전댐 저류지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를 크레인을 이용해 치우고 있다 ©AP Photo/Marjan Vuce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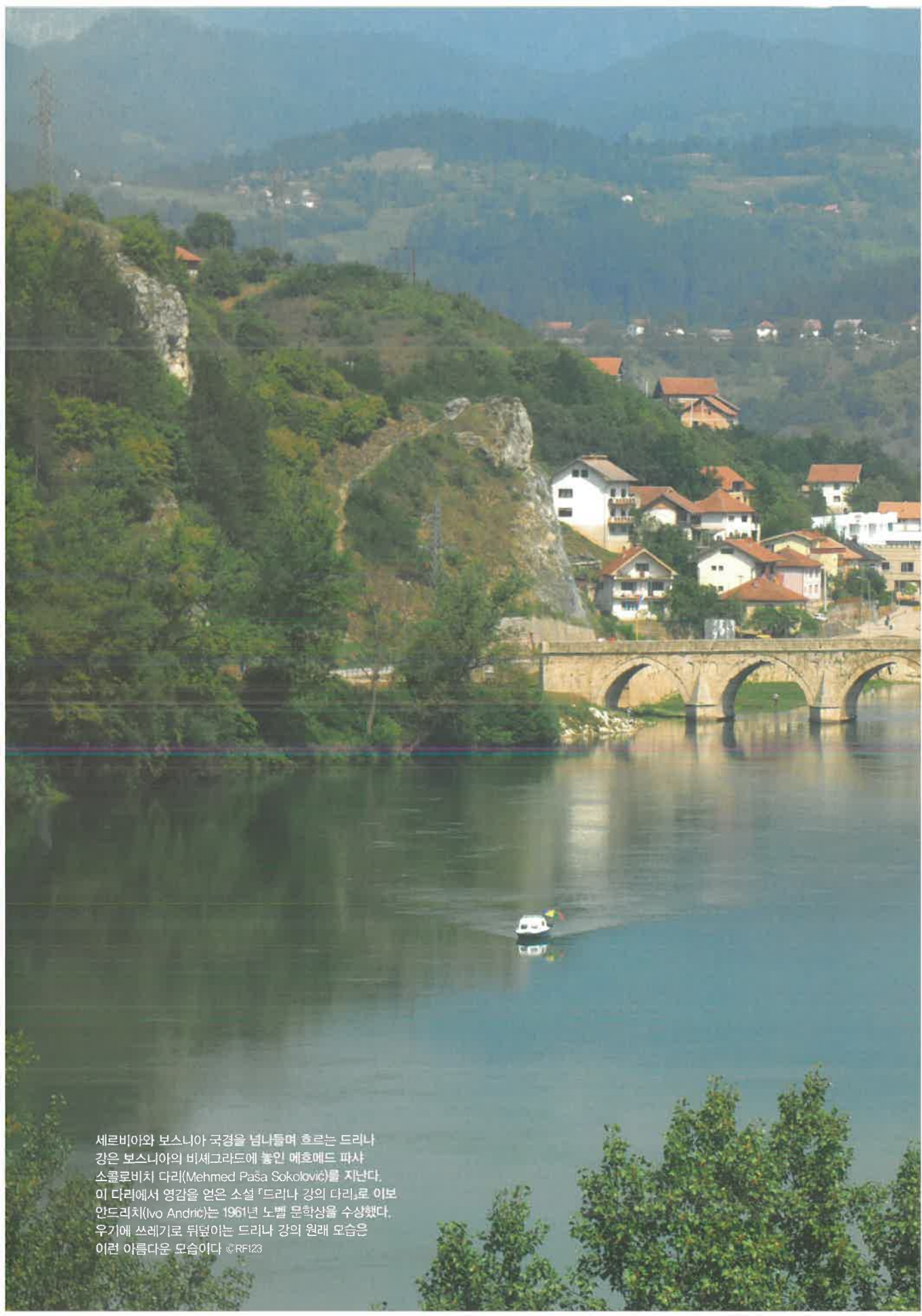
세르비아 남서부 도시 프리보이 인근 매립지에서 노동자가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매년 우기에 림 강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를 강변 매립장에 끌어올리지만 살아돌 뿐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아 우기에 다시 강에 쓸려 들어가기를 반복한다 ©AP Photo/Darko Vojinov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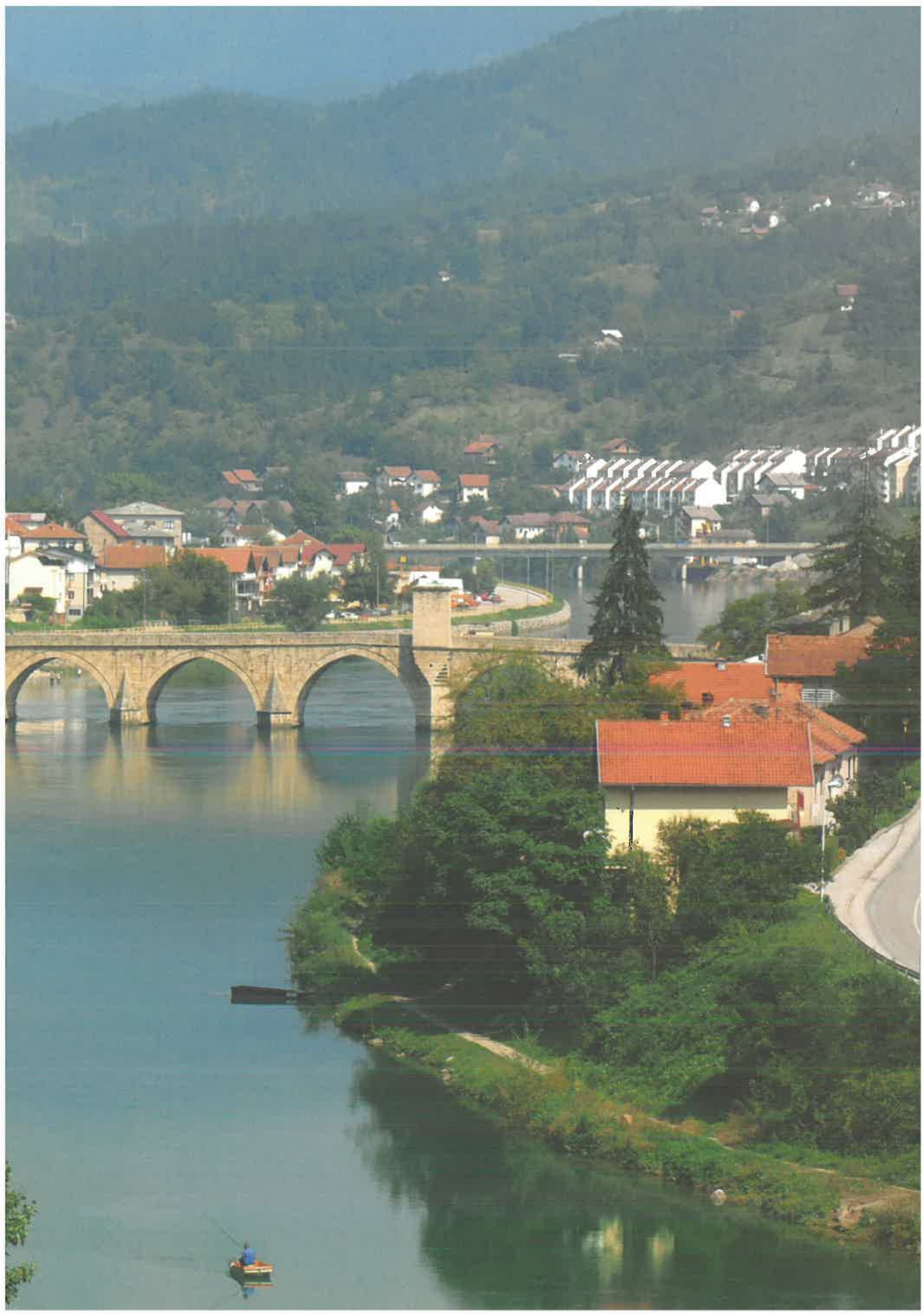
2022년 12월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에 많은 비가 내렸다. 비는 림 강으로 많은 쓰레기를 유입시켰다. 2023년 1월 30일 프로보이 인근의 림 강에서 부유 쓰레기를 청소용역회사 직원들이 강가로 밀어내고 있다 ©AP Photo/Armin Durgut



림 강을 부유하는 쓰레기 위에 앉은 새들. 강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들에 불거나 포함된 각종 오염물질이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야생조류와 어류들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AP Photo/Armin Durgut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국경을 넘나들며 흐르는 드리나 강은 보스니아의 비셰그라드에 놓인 메흐메드 파샤 소콜로비치 다리(Mehmed Paša Sokolović)를 지난다. 이 다리에서 영감을 얻은 소설 『드리나 강의 다리』로 이보 안드리치(Ivo Andrić)는 196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우기에 쓰레기로 뒤덮이는 드리나 강의 원래 모습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다 ©RF123



교복과 엽서

글·그림 고정순 어린이그림책 작가이자 화가 gohssoon@naver.com

2년 전 세상을 떠난 소년의 기일이었다. 음력설에 떠난 소년은 내 친구의 아들이고 급성 백혈병으로 수술 후 가족의 배웅 속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우린 만났다. 아들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라는 친구의 말에 나는 웃는 듯 울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고 만남과 이별이라는 우리 인생의 역설을 관계를 통해 느낀다.

친구를 만나고 길에서 교복을 입은 소년만 마주쳐도 눈물이 났다. 그런 친구에게 ‘은재’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딸아이가 있다.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는 가끔 엄마를 서운하게 만드는 모양이다. 다른 아이들처럼 사춘기를 겪는 소녀가 나는 고맙다. 친구에게 엄마로서 느끼는 기쁨과 허전함을 동시에 안겨주는 그 아이가 있어 친구는 오늘도 고통을 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은재가 얼마 전, 용돈을 모아 고양이 간식을 선물했다. 나의 어린 고양이 ‘복만’에게 직접 그림을 그린 엽서까지 동봉해 보내왔다. 철없이 아름다운 내 고양이는 소녀의 정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열심히 간식을 먹고 기분이 좋다며 가릉가릉 노래한다.

나는 그 엽서를 내가 읽는 책마다 책갈피로 꽂아둔다. 의식한 적 없었는데 나는 이 엽서를 고이 모셔두고 있었던 거다. 예쁘고 고급스러운 책갈피도 많은데 나는 소녀의 이름이 적힌 엽서만 책갈피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같다.

이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가 애뜻해서 엽서를 가끔 만지작거린다.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소년 소녀들이 별을 찌는 병아리들처럼 보인다.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사랑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로 험한 세상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한 이름 모를 친구들. 그들이 살아갈 세상에 슬픔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바란다. 천재지변이나 생로병사는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적어도 어른들이 지켜야 할 안전과 평화가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유가 명백한 죽음도 이렇게 슬픈데 원인도 모르고 책임지는 이도 없는 무수한 어린 생명의 죽음은 얼마나 더 가슴에 사무칠까?

천지 사방에 봄이 깃들어도 춥고 황망한 시간을 사는 부모가 아직도 길 위에서 울고 있다. ㅁ